

배포 일시	2022. 8. 24.(수)		
담당 부서 <총괄>	철도안전정책관실 철도운영안전과	책임자	과 장 조성균 (044-201-4611)
		담당자	사무관 이건준 (044-201-4620)
			주무관 정희승 (044-201-4890)
보도일시	2022년 8월 25일(목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8. 24.(수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

「국가철도산업 클러스터」 사업 설명회 개최

- 현대로템, 우진산전 등 100여 개 철도기업 대상 사업 설명·홍보 -

-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와 국가철도공단(이사장 김한영)은 8월 25일 정부 국정과제*에 반영하여 추진 중인 국가철도산업 클러스터사업에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.

* (국정과제 28번)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 및 국토교통산업의 미래 전략산업화
- (실전과제 2번) 국토교통 전통 산업 혁신과 해외진출 활성화

- 사업설명회에는 국내 철도업계의 대기업인 현대로템과 우진산전(차량 제작사)를 비롯하여 철도 분야의 다양한 중견·중소기업이 참석할 예정이다.

-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관 주재로 진행된 사업설명회는 1) 철도클러스터 사업의 개요 및 추진현황 설명, 2) 클러스터 사업의 기본전략 및 기본구상안 설명, 3) 입주기업 육성지원 전략·대책 및 혜택 안내, 4) 입주업체 건의·제안 및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될 계획이다.

- 특히,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감면, 지원금을 비롯하여 입주기업을 세계적인 제작사 및 부품 강소기업으로 육성하려는 기업 육성전략을 소개하고,

- 유능한 청년 인재들이 원하는 쾌적한 일터, 삶터의 조성계획 및 아파트 특별공급 등 인센티브 지원계획 등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할 예정이다.

- 국가철도산업 클러스터는 국내 최초로 추진하는 철도 분야 클러스터사업으로서, 국가 산업단지로 추진하고 있다.
 - 2021년 10월부터 수립 중인 기본구상계획안을 완료하여 2023년 상반기 내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여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.
 - 철도클러스터가 완성되면 국내 철도산업의 규모가 46% 증대되고, 국가 GDP에 대한 부가가치액이 7,000억원 증대되며, 신규 일자리가 6,900여명 창출되는 것으로 기대효과가 분석되어 국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.
- 철도클러스터는 연구개발 및 인재양성, 차량·부품의 제작·정비, 제작품의 시험검사 및 형식승인, 물류, 국내외 판매 및 국내외 기관 간 협력까지 철도산업의 순환적 수요·공급 과정이 클러스터 내에서 한 번에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는 ‘철도산업의 선순환구조체계’를 구축하도록 구상하였으며,
 - 철도R&D센터, 철도인재센터, 제2관제센터, 스마트물류센터, 국제컨벤션센터 등 핵심적인 철도산업지원시설도 건설하여 입주기업들의 지속 성장을 장기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.
- 국토교통부 이윤상 철도국장은 “철도산업은 세계적으로 연 2.8% 수준으로 성장하는 대표적인 저탄소 성장산업”이라고 강조하면서,
 - “세계적 명품으로 내세울 수 있는 국가철도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글로벌 차량제작사와 많은 부품강소기업을 육성하고, 이를 토대로 한국이 철도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

□ **추진배경**

- 고성장(연 2.8%) 철도차량·부품산업의 세계시장 내 낮은 점유율*과 영세한 산업기반(97%가 중소기업)을 혁신하여 내수 및 해외 수출 확대 필요

* 전세계 철도시장은 급성장(256조원, 연2.2%↑) 중이나, 국내 점유율은 2%에 불과

- ☞ 프랑스, 독일 등 유럽의 철도클러스터와 같이 최초로 철도국가산단을 조성하여 국가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, 일자리 창출*에 기여

* 연매출 46%(1조원) 증가, GDP 부가가치액 7,000억원 및 일자리 6,883명 창출 전망

□ **추진방안**

- (클러스터 조성) 철도산업을 구성하는 각 부문별(기술·산업·안전·인재 등) 기능·시설을 집적하여 클러스터 내 철도산업 선순환구조 구축

부문	조성 시설	부문별 추진전략
기술	○ 종합시험선로 시설고도화 ○ 미래혁신 철도R&D센터	○ R&D 집중지원 / 종합시험선로의 국제화 ○ 차량부품 형식승인의 국제인증화
산업	○ 완성차제작단지 ○ 경전철·트램 중정비센터 ○ 강소부품특화단지	○ (차량) 수소·무가선 트램, 경전철, EMU 등 신성장 차량기술산업 육성 ○ (부품) 글로벌 강소부품기업
안전	○ 스마트 제2철도관제센터	○ 통합 AI 관제시스템 구축
인재	○ 미래철도 인재센터	○ 4차기술, 국제인증, 제작사 인력 등 전문가 양성
물류	○ 스마트 종합물류센터	○ 비대면추세 대응 철도종합물류 도입
협력	○ 국제철도컨벤션센터	○ 국내외 MOU-협력체계 / 국제통상 및 국제기구 회의 유치 / 국제박람회

□ **향후계획**

- 추진 중인 기본구상 용역*을 완료('23.상)하고, 예타조사('23년)를 거쳐 개발·실시계획 수립 등 본격사업 추진('24~)

* 국토부, 충북도, 운영기관 등 협의체/자문단을 구성하여 기본구상계획 수립 중('21.10~)